소록도 한센인 우울감 일반노인보다 덜하다

소록도병원 363명 방문 조사
의료·의식주·생활 지원 영향

고흥 소록도 한센인의 우울감이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록도병원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속적인 지원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국립소록도병원이 최근 병원내 병동과 한센인 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방문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우울감 평균치는 7.26점이었다. 점수 범위는 0~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크고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낮다.

1~9점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점이 111명, 우울감이 없다는 응답은 70명이었다. 20~29로 우울감이 높게 나온 한센인은 16명이었다.

대상자 중 65세이상 고령 한센인의 우울감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7.52점이었다. 병동환자의 우울감이 11.6점으로, 마을거주 환자 6.49점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또 여성(8.67점)의 우울감이 남성(5.79점)보다 높았다.

이를 동거형태로 살펴보면 가족 이외의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한센인의 우울감이 8.66점으로 가장 높았다. 혼자 거주하는 한센인의 우울감은 7.54점,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때는 우울감이 6.59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소록도 한센인의 우울감은 외부 사회의 일반 노인 우울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같은 방식을 이용해 측정한 일반 노인 조사에서 이들의 우울감 평균은 8.13점으로 한센인 노인보다 높았다.

일반 장애노인의 경우 우울감 평균은 10.28점으로 소록도 한센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록도병원은 이처럼 한센인의 우울감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한센인에 대한 의료·의식주·일상생활 지원으로 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일반 사회보다 종교생활에 충실한 한센인들의 신앙생활도 우울감이 낮은 이유인 것으로 병원측은 풀이했다.

조서희 소록도병원 의료부 간호팀장은 "한센인 노인 비율이 높고 장애환자가 많아 일반 사회 노인보다 우울감이 높을 것으로 예견했는데 이번 조사로 정반대 현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한센인 대상 우울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한센인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26	달뜸	17:07
해짐	19:33	달짐	04:00

일교차 커요

기온이 30도 넘는 등 낮에는 덥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6/32	보 성	맑음	10/27
목 포	맑음	15/27	순 천	맑음	14/28
여 수	맑음	16/24	영 광	맑음	13/30
나 주	맑음	12/32	진 도	맑음	11/27
완 도	맑음	14/26	전 주	맑음	15/32
구 례	맑음	10/31	군 산	맑음	15/30
강 진	맑음	12/27	남 원	맑음	12/32
해 남	맑음	11/27	흑산도	맑음	14/21
장 성	맑음	13/3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먼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
	먼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서)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42	06:02
	12:45	18:10
여수	07:34	01:35
	20:11	13:36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한때나쁨

◇ 주간 날씨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16/32	15/32	16/31	16/29	16/26	15/26	15/29

5·18 전시회 '태국 극우 작가' 작품 논란

태국 예술계 "친 군사정권 성향 인물" 반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2016 아시아 민주·인권·평화미술전 태국 출신 참여작가 수티 쿠나비차야논트가 극우 성향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시는 5·18민주화운동 36주년을 기념해 5·18기념재단과 공동 주최했다.

최근 '태국 민주 문화운동가'(CAD) 단체소속 문화예술인 118명은 5·18재단에 공개서한을 보내 수티 쿠나위차야논이 친 군사정권 성향이라고 주장하며 '작가 선정 이유'를 물어왔다. 지난 2013년 잉락 전 총리가 사면법에 부정부패로 물러난 친오빠 탁신 전 총리를 포함시키자 태국에서는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 이 때 수티 작가가 시위에 참여해 반정부 문구가 써진 티셔츠를 판매하며 군부편을 들었다는 이유다. 당시 쓰인 티셔츠와 스프레이 등이 이번 전시에 재현됐다. 이 시위는 쿠데타를 촉발시켜 지난 2014년 5월 잉락 전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하고 군부가 들어섰다.

현재 수티 작가는 "군사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미술관은 18일 해당 작가 작품 옆에 '탁신 전 총리 사면법과 부정부패에 반대해서 일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군부독재를 촉발시킨 측면도 있다'는 설명문을 붙여놓았다. 또 CAD측에도 서한을 보내 "태국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점을 감안해 수티 이외에도 당신들이 추천해준 작가를 초대해 광주시민과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래 포부를 외치다…'공감, 미디어파사드' 퍼포먼스

1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공감, 미디어파사드'에 참여한 시민 100여명이 미래에 대한 포부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영상으로 제작돼 광주·홍콩·중국 우한 등 3개 도시에서 '미디어파사드' 기법으로 상영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전두환 장남 회사서 추징금 24억원 확보

검찰이 법정싸움 끝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이 이례적 민사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연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말 나온 이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이자가 가산된다. 리브로의 영업이익은 2014년 7억8000여만원, 2015년 6억1000여만원이다.

전재국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리브로는 앞서 전재국·전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6000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형제에게 갈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약 반년간의 재판 끝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형식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찰의 완전한 승소다.

이번 결정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56억90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하라고 한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 환수팀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연합뉴스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기관사 구속 검찰 송치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지난달 22일 전라선 율촌역(여수)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를 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기차교통 방해)로 기관사 정모(5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 외에 탈선 사고와 관련해 추가 입건자는 없다고 철도경찰대는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3시39분께 율촌역을 200여m 앞둔 선로변경 지점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5㎞로 운행해야 함에도 117㎞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관제센터가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당시 터널 구간을 지나고 있어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

"통신자료 무단수집 위헌"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국정원·경찰·검찰·군 등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는 행위에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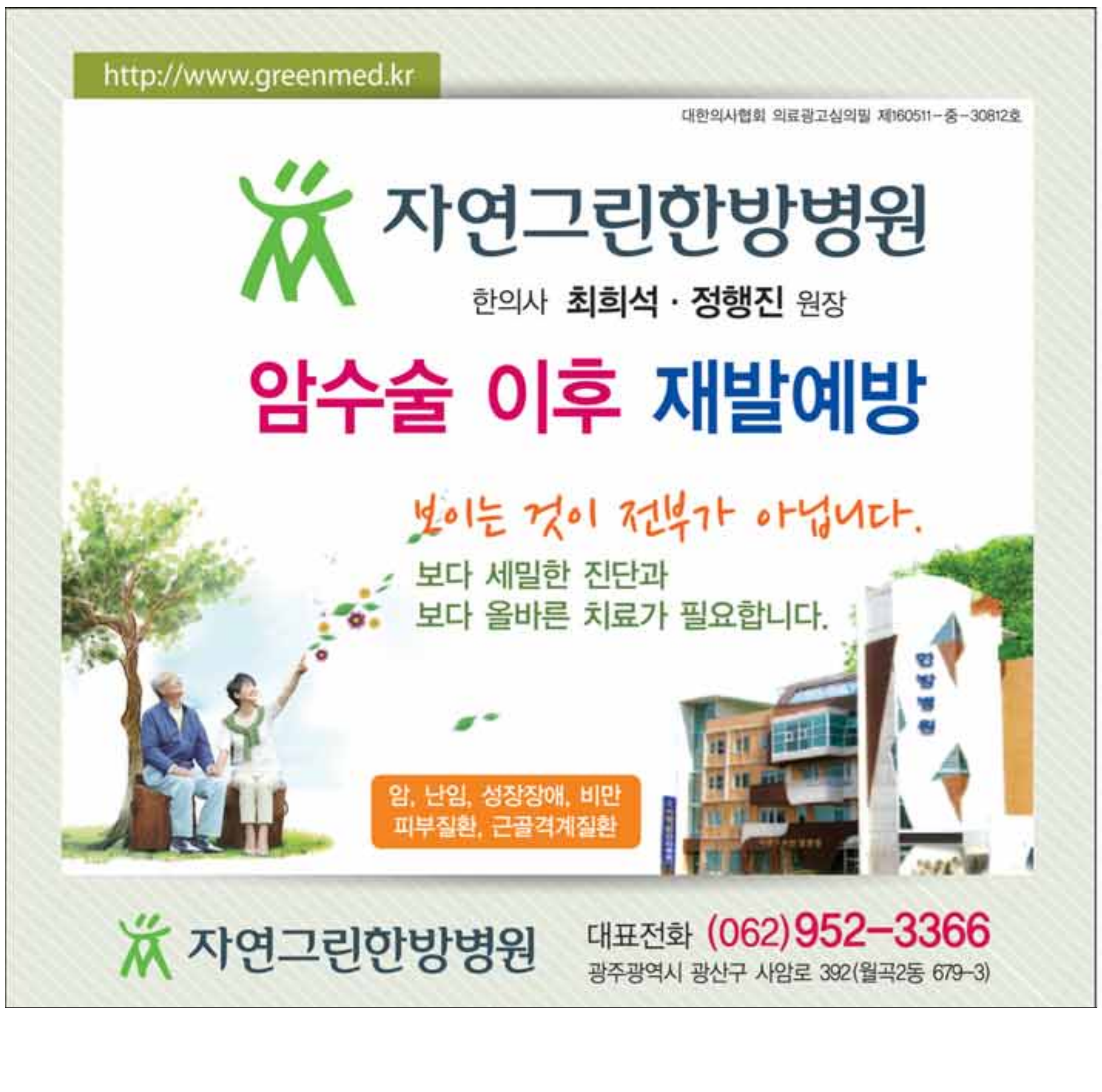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공개모집한 청구인 500명 명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위헌으로 봐야 할 근거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 백도서 불법낚시하다 '딱 걸렸네'

쌍나팔

○…섬 전체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백도'에서 바다낚시를 즐긴 낚시꾼과 이들을 실어 나른 낚싯배 선장이 해경에 적발.

○…1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낚시꾼 박모(44)씨 등 2명과 낚싯배 선장 김모(34)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이날 0시까지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에 무단 상륙해 농어와 볼락 등 14㎏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했다는 것.

○…이들은 이날 백도 인근을 순찰하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는데, 해경은 "상·하백도는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동·식물 및 수산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여수=김창화기자 chkim@